

세계사에서의 무기발달과 전술 전략의 변화 III



許重權

육군 제3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육군 중령, 역사학 박사

고도로 조직화된 마케도니아의 공병 부대는 포위전에 사용되는 무기뿐 아니라 강을 건너는 부교도 제작하였다. 포병의 경우에는 특별히 제작된 중요한 부속들은 동물이나 마차에 의하여 운반되었는데, 이것들은 부분들로 분해되어 한 덩치씩 조립되어 운반되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전투시 단편명령을 전달하기 위하여 7명의 부관이나 근위병 그룹 중 하나를 사용하였다. 근위병 부대는 현대의 사관학교와 비교할만한 훈련 계획으로 훈련된 장교단을 의미한다.

무기체계의 발달과 전술 전략의 변화

이 기간 중에는 여러 명의 명장들이 활약하였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전략적 원칙들을 덜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체로 한니발이 "전략의 아버지"라 불려져 오고 있다.

네로가 Metaurus 전투에서, 그리고 스키피오가 스페인과 아프리카 전역에서 한니발로부터 배운 교훈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 구사하기 전까지는 네로와 스키피오에 필적할만한 전략적 이해를 보여준 군사 지도자들은 거의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인 전쟁을 인식한-때때로 강조한-장군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알렉산더, 한니발 및 공격적인 기질을 지녔던 로마인들이 수행했던 전쟁들을 제외하면, 고정된 지역에 천막을 치고 싸웠던 전투는 상대적으로 덜 빈번하였다. 서로 대항한 장군들은 도시와 성벽들을 봉쇄하면서 동시에 다른 편이 물자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였다.

연합된 하나의 전투 부대에 기본적인 군사적 요소들을 집중하는 것이 새로이 발전하였다. 아시아의 지도자들, 특히 페르시아인들은 기병부대의 운용에

대하여 이해하여 왔으나, 그들은 기병부대를 보병부대와 같이 협조시켜 사용할 줄은 몰랐다.

유럽에서는 Leuctra 전투에서 Epaminondas가 보병부대와와의 협조 하에 전술적 차장(遮障) 및 지연(遲延)의 목적으로 기병부대를 어떻게 구사할 것인지 보여 주었다. 동시대에 시라쿠스의 Dionysius도 역시 합동군 부대를 운용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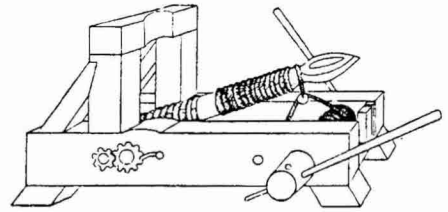
그러나 역사상 과학적인 군사 조직의 최초의 예는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가 이룩하였다. 보병 및 기병 부대와와의 협조 하에 중미사일을 사용한 그의 개념은 야전 포병의 효시였다. 그의 아들 알렉산더는 이 개념을 더욱 발전시켰다.

필립 2세는 또한 비정규적인 psiloi 정도의 속도와 유연성으로 중보병인 홉라이트를 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paspists라고 불린 새로운 형태의 경보병 부대를 발전시켰다. 이것은 반세기 전에 아테네의 Iphicrates가 경무장 부대원인 용병으로 훈련된 peltast를 그리스 전쟁에 사용한 것으로부터 유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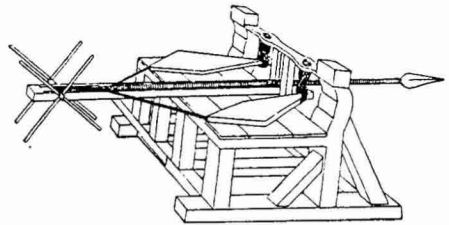
이 시기에는 catapult와 ballista가 진가를 발휘하였다. 시리아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catapult¹⁾는 여러 명이 동원되어 최대 사거리 500야드 유효사거리 200야드까지 무거운 화살을 날릴 수 있는 張力을 가진 큰 활이었다.

개념상 유사한 ballista는 더 큰 무기인데, 비틀림의 힘으로 가능한 멀리까지 무거운 돌을 세계 던지는 무기였다. 이와 같은 무겁고 운반하기 어려웠던 무기들은 포위 작전과 요새 방어작전에서 사용되었는데, 필립 2세와 알렉산더 대왕은 야전에서 가벼운 catapult와 ballista를 사용하였다.

작은 무기들과 장갑무기 면에 있어서는 별다른 발전이 없었으나, 약간의 개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마케도니아의 긴 창인 arissa, 로마의 작은 검인 gladius와 창인 pilum 등에서는 개량이 있었다. 역시 그리스의 peltasts와 마케도니아의



Catapu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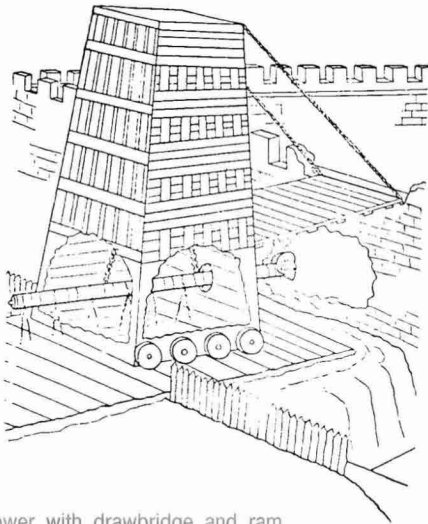
Ballista

hypaspists에 의해 사용된 가벼운 수레와 장비들의 도입 등은 현저한 발전이었다.

포위전에서 사용된 기본적인 무기는 파성퇴(破城槌)와 이동 탑이었다. 수레 위에 올려진 고리버들과 나무로 만들어진 큰 방패인 mantelet는, 성벽에 대한 포위 무기의 유효 사거리 안에 위치한 조종수와 운용병을 보호하는 은신처로 사용되었다.

알렉산더 대왕의 기술자였던 Diades는 성벽의 상층부를 파괴시키기 위하여 높은 고도에서 수평을 유지한 채로 걸려진, 길고 무거운 지주대로 구성된 성벽에 거는 고리 무기를 고안하였다. 그는 또한 telenon이라고 하는 기중기의 내민 팔에 달려서 여러 명의 병사들을 태울 정도로 충분히 컸던 바구니를 고안하였다.

이 무기는 높은 기둥과 수평의 지주대에 달려서 도르래에 의하여 올리거나 내려질 수 있었던 무기였다.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보병들이 성벽의 높이까지 끌어 올려졌고, 해자(壕)와 같은 어떠한 종류의 장애물 너머로 운반될 수 있었고 적지로 곧바로 투입될 수 있었다.



Tower with drawbridge and ram

유명한 수학자이자 과학자였던 Archimedes는 로마군에 대하여 싸운 시라쿠스의 방어 목적으로 몇 가지 특별한 무기들을 창안하였다. 불행하게도 이 무기들의 디자인은 현재까지 하나도 계승되지 않았다.

이 무기들에 대하여 현전하는 빈약한 기술들에 의하면, 이것들은 이미 알려졌거나 사용된 무기들(디아테스가 사용한 무기와 같은 것을 말함)을 개량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아르키메데스는 파성퇴에 대응하기 위하여, 또는 시라쿠스의 성벽을 공격하기 위하여 바다로부터 접근해왔던 함대를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로 커다란 거는 무기나 집게 무기의 사용을 선호하였다.

이 기간 중의 육상전술상의 중요한 2가지 발전은 Thebe의 Epaminondas에 의하여 도입된 전술적 기동과 로마군의 전술적 유연성이었다.

이전 시기에는 전술적 기동 면에서 조잡하고 임시적인-통상 우연한-것이 구사되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마라톤 전역에서의 전술적 기동이었다. 그러나 Leuctra에서 Epaminondas는 심숙고한 후작전상 斜線의 전투대형을 취함으로써 다수 또는

집중의 그리고 병력 절약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가 미친 다른 공헌은 기동계획에서 기병과 보병을 결합시킨 데에 있었는데, 이것은 기병부대의 충격 동작에만 의존하였던 과거의 관습으로부터 벗어나는 의미있는 출발을 의미하였다.

레지온 내에서 세포단위적인 전투대형(모든 조치가 자체 내에서 해결되는 전투대형)을 유지한 로마인에 의하여 도입된 전술적 유연성은, 그리스의 팔랑스가 가졌던 단순한 다수의 개념으로부터 과감한 일탈을 의미하였다. 로마군의 전투대형은 평평하지 않은 지형에서도 쉽게 기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로마인에게 이렇게 유연성이 있는 전투대형이 미래의 전술적 기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은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과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였다. Ilipa 전투에서 스키피오 장군은 로마인이 이러한 교훈을 얼마나 깊이 그리고 잘 받아들였는가를 보여주었다.

인도에서 일찍이 사용된 코끼리의 전술적 운용은 전투용 코끼리의 잠재력과 한계점을 함께 보여준 Hydaspes 전투를 통하여 서구인의 군사적 마인드에 깊이 새겨졌다. 알렉산더의 말이 코끼리를 대면하기를 거부하자, 대왕의 훈련된 팔랑스는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하였으나, 마침내 코끼리를 향하여 돌아서 공포의 충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Seleucus는 象兵에 대하여 강한 인상을 받아 20년 후, 그는 500마리의 코끼리를 받은 대신 찬드라굽타에게 중요한 지역을 양도하였다. 그 후 그는 이 전투용 코끼리를 이용하여 Ipsus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그 후 전투용 코끼리의 사용은 그리스와 카르타고에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한니발 장군이나 Pyrrhus 장군(실제로 후에 로마에 대하여 어렵게 승리한 전투에서 코끼리의 역할은 매우 컸다)과 같은 이에게 코끼리가 유용한 무기였던 것은 분명하다.

Beneventum과 Heraclea 전투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코끼리는 코끼리를 보유하지 못한 부대와외의 전투에서 가장 훌륭한 무기였다. 그러나 훈련되고 장비를 보유한 적이 코끼리를 도망하게 할 수 있게 되자, 도망기는 코끼리는 적에게보다 아군에게 더 위험하게 되었다.

이 이유로 전투용 코끼리 운용수는 자신이 도망갈 수 있도록 코끼리의 머리에 박아 넣을 수 있는 철제 못을 휴대하게 되었다. 인도인들은 火箭을 對 코끼리용으로 고안하였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리스인은 대전차 지뢰의 원형인 코끼리의 부드러운 발바닥을 상처내기 위한 용도로 땅위에 놓는 고정된 연결 철제 못을 고안해 내었다. 이 무기는 Gaza 전투에서 Ptolemy가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

기원전 4세기에 해군은 규모 면에서 쇠퇴하였지만, 3세기에 급속하게 확장하였다. 1, 2차 Punic 전쟁에서 로마군과 카르타고군은 때때로 바다에서 150,000명의 수병과 해병을 승선한 500척의 함대를 각각 보유하였다. 각 함대는 350척 이상의 戰船을 보유하였다.

이와 같이 방대한 함대를 통제하기 위하여 로마와 카르타고는 현대의 해군본부나 해군성과 필적할 만한 행정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이 기간에 트리메네는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전선으로 기능하였다. 시라쿠스의 Dionysius 장군이 이와 같이 큰 배를 최초로 만든 자임에 틀림없다. 포에니 전쟁 때에 이르자, 5단 노예선이 전선의 기본이 되었다. 이러한 갤리선에는 300명의 노수와 수병 및 100명 정도의 원양 항해 병사들- 현대의 해병대와 유사한-이 탑승하였다.

3세기 중반까지 해군 전술은 변하지 않았는데, 로마 배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졸렬하다는 약점과 카르타고의 항해술이 우수하다는 것을 인식한 로마인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 새로운 개념은 상대방의 배에 거는 도구 및 corvus라 불린 승선용 다

리를 결합한 것이었다.

충격을 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잡한 로마 배의 노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로마 배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카르타고인들은 corvus에 걸릴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럴 경우 로마 레지온 병사들에 의하여 저항할 수 없는 피해가 수반되었다.

이 기간에 지원 작전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데, 거의 왕과 한니발 장군이 수행한 원거리 작전에서는 지원 면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마케도니아인, 카르타고 및 로마인들은 행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물자의 휴대에서 내뿜을 강조하면서 군수물자의 이동체계를 조직화하였다. 필수적인 장비와 무기들은 마차와 손수레가 이용되었지만, 화물 운반용 동물들에 의하여 운송되었다.

■ 전례 1 (기원전 371년 봄, Leuctra 전투)

스파르타군은 정예부대를 우익에 배치하고 약간의 기병과 경부대로 하여금 측익을 보호하게 하는 통상적인 팔랑스 대형으로 정렬하였다. 그들은 테베군이 유사한 대형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한 전투에서는 스파르타군이 수적으로나 전투 기술면에 있어서 우세하였기 때문에 승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테베의 Epaminondas



알렉산더 대왕이 무적의 보병으로 훈련시킨 hypaspist

기 획 연 재

는 스파르타의 예상대로 포진하지 않았다. 그는 48명의 중심과 32명의 넓이(48×32)로 좌익의 중심을 4배로 강화하였다.

기병부대의 遮障으로 보호된 Epaminondas의 나머지 부대는 스파르타군의 좌측과 중앙을 바라보고 테베군의 우측 뒤로 제형(梯形)으로 배치하였다. 이 전투대형은 공격 중심을 두껍게 하고 측익부대를 운용하지 않은 역사상 최초의 예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현대에 사용하는 공격시 主攻의 운용에 대한 원형이었다.

Epaminondas는 좌익의 중심 부대에 위치하여 스파르타군의 우측에 대하여 맹렬한 공격을 가했는데, 이 때 테베군의 스파르타 군에 대한 거부 부대로 사용된 중앙과 좌측의 기병과 보병은 교전을 피한 채 스파르타 군의 관심을 그들에게 지향하게 하면서, 천천히 전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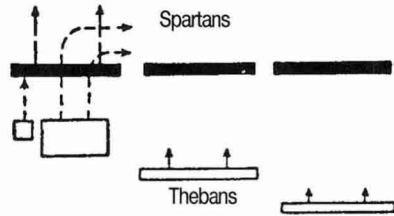
스파르타군은 테베군의 새로운 전술로 인하여 혼란에 빠졌다. 테베군의 중심 무개가 곧 스파르타군의 우측을 강타하였다.

Epaminondas 장군은 테베군의 중앙과 우측부대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받고 도주하는 잔여 스파르타군의 노출된 측방으로 기동하여 승리를 완성하였다. 스파르타군은 2,000명 이상을 잃었는데, 테베군의 사상자는 무시할만하였다. 스파르타의 군사적 명성은 영원히 사라졌다.

마케도니아의 군사제도, 기원전 350년~320년

기원전 359년 권좌에 오르자마자 필립 왕은 마케도니아 군을 완전히 재조직하였다. 그 결과 그 때까지 세계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가장 훌륭한 군사력이 건설되었는데, 그것은 그리스 시민군들이 보여 주었던 국가에 대한 애국심으로 무장된 그리스 용병들의 훈련된 군사 기술을 조합한 국민군의 형태로 나타났다.

Battle of Leuctra



역사상 최초로 과학적인 밑그림(병사 개인, 무기 및 당시의 기술 등의 능력과 한계점에 대한 치밀한 분석에 기초한)이 연합군의 전술적인 행동이라는 선명한 개념으로 전개되었다. 신중한 조직화와 훈련 계획에 의하여 군사들은 한 사람(필립 왕이나 알렉산더 대왕)의 지휘 아래 군사적 기계로 다듬어졌다.

이 군대는 아마도 이후 18세기의 기간 동안-달리 표현하면, 화약무기들의 전장을 지배할 때까지-건설된 어떠한 군대들과 싸워도 승리할 수 있었다.

마케도니아군의 근본 토대는 보병이었다. 마케도니아 팔랑스는 그리스군 팔랑스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지만, 8~12명의 중심 대신에 16명의 중심을, 그리스 팔랑스의 집단이 어깨와 어깨를 연결한 것 대신에 병사 개인간에 약간의 틈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마케도니아 보병에는 pezetaeri와 hypaspist라고 하는 2가지 종류의 전사가 있었다. 수적으로 많았던 pezetaeri는 13피트 길이의 sarissas라 불린 창을 휴대하였다(훈련용으로는 더 무겁고 긴 sarissa가 사용되었다)²⁾.

병사들은 그에 추가하여 어깨에 투석기를 메고 무릎을 꿇었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큰 방패를 들고 허리에는 단검을 차고 투구와 가슴 방패 및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였다. sarissa는 끝에서 3~6피트 정도의 부분에서 파지 되었는데, 전투시 팔랑스 대형의 앞에서 4내지 5열로 형성하여 창끝 부분을 전방으로 돌출시켰다.

pezetaeri 부대는 무거운 무장에도 불구하고 부단

한 훈련으로 통상적인 그리스 팔랑스보다 기동성이 더 뛰어났다. 그들은 완벽한 대형으로 다양한 이동과 기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였다.

그러나 마케도니아의 보병 집단인, hypaspist는 어떤 형태의 전투에도 잘 적응하였다. hypaspist는 8~10피트 길이의 단창을 휴대하고 경무장을 한 점에서 pezetaeri와 구분되었다. hypaspist 팔랑스 부대의 대형 형성과 전개는 pezetaeri의 그것과 구별되었다.

hypaspist 병사들은 가능한 한 더 많이 훈련되었고 더 높은 수준으로 이동하고 더 빨랐고 더 민첩하였다. 알렉산더 대왕이 통상적으로 사선의 전투대형을 구사하여, 우익의 기병부대를 제형의 뒤쪽에 두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hypaspist 병사들은 팔랑스의 우익으로 사용되어 신속하게 기동하는 기병부대와 상대적으로 느렸던 pezetaeri 부대와의 사이에 형성된 틈 부분에 투입되었다.

필립 왕이 기병부대의 충격 행동을 위하여 hypaspist 중보병 부대를 기동의 토대로 구사하였을 지라도, hypaspist 팔랑스는 기병의 타격에 의하여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의 적에게 완벽하게 정렬된 상태로 강력한 충격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기동성을 보유하였다.

이와 같은 전술을 구사하기 위하여, 필립 왕과 알렉산더 대왕은 평지를 전장으로 선호하였으나, 그러한 전술개념은 거친 지형에서도 적용될 수 있었다.

측방과 후방을 보호하고 넓게 신장된 전장에서도 기병부대와 접촉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두 종류의 경보병 부대가 있었다. 모든 4명의 홉라이트는 2명의 peltasts와 1명의 psiloi라 불린 병사를 가지고 있었

다.

일반적으로 전투전 대형에서 경무장 창수인 peltasts는 8명의 중심으로 팔랑스의 후방에 배치되었다. 대부분 중보병을 위하여 징집된 자이거나 하인들이었던 psilos는 팔랑스의 전방 소전투선에 배치되었는데, 그들은 활, 창 및 투석기로 무장하였다.

팔랑스의 조직은 현대군의 조직과 놀랄만큼 유사하다. 64명의 전사들로 구성된 소대(tetrachia), 128명의 전사로 구성된 중대(taxiarchia), 256명의 전사로 구성된 대대(syntagma), 1,024명의 연대(chiliarchia), 4,096명의 사단(simple phalan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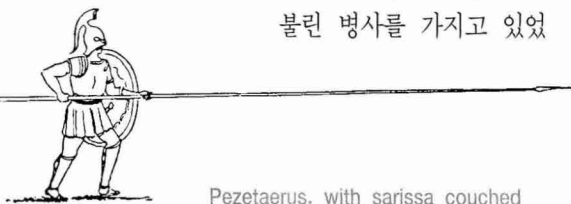
현대의 사단과 같이, 小 phalanx는 제병 합동된 자체보유의 전투 부대였는데, 중보병부대에 추가하여, 2,048명의 peltasts 및 1,024명의 psiloi 및 1,024명의 기병 연대(phipparchy) 등 총 8,192명으로 구성되었다.

대 팔랑스는 4개의 소 팔랑스로 구성되었는데, 현대의 야전군에 비유되었는데, 32,000명의 전사로 구성되었다.

보병처럼 잘 훈련되고 잘 무장된 기병은 마케도니아군의 결정적인 부대였다. Companion 기병 부대의 엘리트는 마케도니아의 귀족들이었는데, 필립 왕과 알렉산더 대왕은 전투시 그들과 함께 기동하였다.

기마병들은 잘 훈련되었고 충격 행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Thesslian 馬兵들이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Companion 기병은 보병 팔랑스의 우측에 위치하였고 Thesslian 기병은 팔랑스의 좌측에 위치하였다.

이와 같은 중기병의 기본 무기는 10피트 길이의 長槍이었는데, 던질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웠고 말에서 내린 적 기병을 찌르거나 적 보병을 꿰뚫는데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무거웠다. 또한 그들은 허리에 휴대한 단검을 잘 사용할 수 있었다. 그들은 가슴과 어깨를 보호하는 갑옷과 방패, 투구



Puzetaerus, with sarissa couched

기 획 연 재

및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였다. 말들도 머리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었다.

중간 수준의 다른 기병부대들도 있었다. 말을 타거나 말에서 내려서 전투할 수 있는 창수나 龍騎兵과 같은 다른 부대를 말하는데 그들은 가벼운 무기를 휴대하거나 경무장을 하였는데 다양하였다.

끝으로 psiloi와 유사한 정도로 무기와 무장을 한 말탄 경기병 부대가 있었는데, 그들은 투석기, 창, 활 등을 휴대하였다. 그들은 투구 외에 갑옷은 거의 입지 않았다. 그들의 임무는 차장(遮障), 수색(搜索) 및 팔랑스의 측방 보호였다.

등자(등子)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기병은 말안장 위에 앉아(경기병은 안장 없이 말 위에 탑승한 경우도 흔하였다) 오늘날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고삐를 조종하였다. 전투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오랜 훈련과 연습이 마부나 말에게 필수적이었다.

마케도니아군은 야전 포병의 원형을 사용한 최초의 군대였다. 필립 왕은 가벼운 무게의 catapults와 ballistae를 고안하여 포위 군대에 동행시켰는데, 그것들을 야전 작전에서도 사용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은 이런 무기들을 야전 전투에서도 곧잘 사용하였고 특히 산악 전투 및 도하 작전 시에 구사하였다. 필립 왕은 이러한 무기들의 핵심 부품은 동물을 이용하여 운반되도록 고안하였다. 덩치 큰 나무 부속은 분해하여 운반되었다.

물론 이 때문에 야전 작전 시에는 그 운용이 지체되었으므로, 알렉산더 대왕은 조립된 상태로 마차를 이용하여 운반되도록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립 왕과 알렉산더 대왕 및 그들의 기술자들은

포위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무기들을 도입하였는데, 그것은 그리스의 앞 시대인들의 그것보다 포위전에서 훨씬 성공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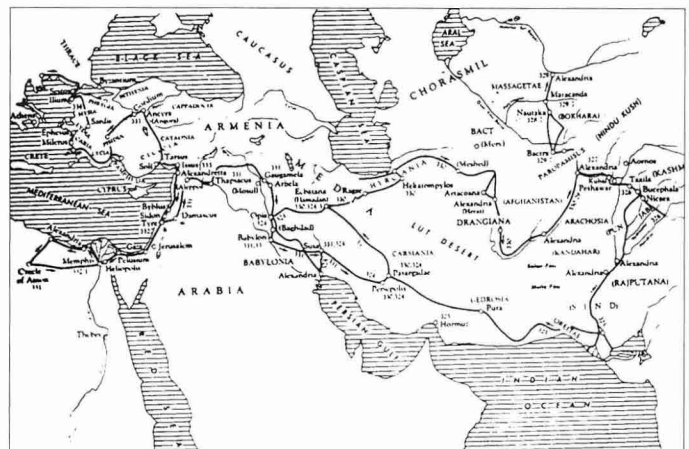
고도로 조직화된 마케도니아의 공병 부대는 포위전에 사용되는 무기뿐 아니라 강을 건너는 부교도 제작하였다. 포병의 경우에는 특별히 제작된 중요한 부속들은 동물이나 마차에 의하여 운반되었는데, 이것들은 부분들로 분해되어 한 몽치씩 조립되어 운반되었다.

마케도니아군의 참모 조직에 대한 사료는 분명하지 않으나, 잘 발달되었음이 분명하다. 명령은 목소리, 트럼펫 또는 깃발의 움직임으로 전달되었다. 장거리 신호는 주간에는 연기 신호로, 야간에는 봉화를 이용하였다.

알렉산더 대왕은 전투시 단편명령을 전달하기 위하여 7명의 부관이나 근위병 그룹 중 하나를 사용하였다. 근위병 부대는 현대의 사관학교와 비교할만한 훈련 계획으로 훈련된 장교단을 의미한다.

마케도니아의 필립 왕은 그때까지 밝혀진 어떤 것보다 잘 발달된 행정 및 지원 조직을 운용하였다. 군의관이 마케도니아 군에 배속되었고 야전 병원과 같은 조직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 효과적인 공병 부대가 있어서, 포위작전이나 도하작전에서 사용되

Alexander's Conquests



었다.

이것은 필립 왕이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에게 물려준, 탄탄하고 유능하며 잘 조직된 과학적인 것이었다.

■ 기원전 334년 7월, 알렉산더 대왕의 전략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페르시아에 대한 일련의 전역들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 전략을 수립하였다. 마케도니아 및 그리스에 연결되는 알렉산더 대왕의 유일한 통신 축선은 다다넬스 해협을 건너 멀리 떨어져 신장되어 있었다.

페르시아 함대가 에게해 및 동부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왕의 통신축선은 해협에서 절단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왕의 전반적인 계획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 본토 내에서의 반대자들의 반란을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왕은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이전에 반드시 페르시아 함대를 격파해야 한다고 결심하였다.

충분한 규모의 함대도 없이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전체 지중해 연안을 포위하였는데, 이것은 대왕의 기지에 대한 안전을 확증함은 물론, 페르시아 함대를 굴복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대왕은 통신축선에 대한 위협 없이 페르시아로 진군할 수 있었다.

■ 기원전 333년, Issus 전투

페르시아군이 Pinarus 강 바로 북쪽의 좁은 해안 평원에 두꺼운 중심 대형으로 포진하였음을 알렉산더 대왕은 발견하였다. 대왕은 루크트라 전투에서 Epaminondas 장군이 구사한 전술을 채택하기로 결심하였다.

대왕은 Companion 기병부대와 hypaspists 팔랑스 부대를 페르시아군의 좌익을 공격하는 부대로 편성하고 나머지 팔랑스 부대를 그의 좌측 후방에 제형으로 포진시키기로 결심하였다. Thessalian 기병부대는 위험한 페르시아 기병의 공격으로부터 팔랑스의 좌측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예비 행동을 통하여 대왕은 Pinarus 강 남쪽의 丘陸地帶로 페르시아군의 遮障 부대를 밀어내었다. 그리고 나서 대왕은 Companion 기병부대를 지휘하여 작전계획을 실천에 옮겼다. 제형의 팔랑스 선두 부대는 강을 건너는 사이에, 페르시아군의 중앙부대가 역습을 가하자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그 때 알렉산더 대왕의 기병부대의 충격이 페르시아군의 좌익을 강타하였는데, 대왕이 서쪽 방향으로 기동시킨 hypaspists 팔랑스가 페르시아군의 노출된 중앙부로 밀려들어 갔다. 이 지원으로 마케도니아군의 중앙부는 회복되었고 새로이 공격력을 정비하였다. 이 때 다리우스 왕의 우익에 위치한 페르시아군의 기병부대가 강을 건넜으나, 마케도니아군의 좌익 팔랑스와 Thessalian 기병부대에 의하여 격퇴되었다.

마케도니아의 보병과 기병 합동부대의 공격으로 페르시아군의 중앙부가 붕괴되어 가자, 다리우스 왕은 공황 상태로 공격을 받고 있는 페르시아군을 빠져 나와 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페르시아군의 피해는 50,000명 이상의 엄청난 것이었으나, 마케도니아군의 전사자는 450명이었다.

마케도니아군은 다리우스왕의 왕비, 자식 및 어머니를 포함하여 다리우스 왕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았다. 알렉산더 대왕은 간단하게 이 작전을 매듭짓고 해안을 그의 기지로 삼기 위한 원래의 계획을 실천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註

- 1) 현대의 전문가들 사이에도 catapult와 ballista의 분류 및 계통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가 존재한다.
- 2) 어떤 연구자들은 전투용 sarissa는 21피트였고, 훈련용 sarissa는 24피트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견해는 다른 연구자들이 주장한 것과 같이 중세 스위스 槍手들이 그와 같은 길이의 창들을 능숙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아니다.